

#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바로 '자비'입니다

니르바나 테마연주 다섯 번째

'원성 스님과 함께하는 자연동화'



니르바나오케스트라 연주 장면(왼쪽)과 원성스님이 무대 앞 스크린에 나오는 자신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동승'의 작가 원성 스님이 영국서 돌아왔다. 1년만이다. 귀국하자마자 음악회 무대에 섰다. 6월 14일 서울 불교방송 3층 다보원에서 열린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다섯 번째 연주회 강사로 나섰다.

이번 연주회의 테마는 '원성 스님과 함께하는 자연동화'다. 원성 스님의 인기는 웬만한 인기연예인 뺄릴 정도다. 음악회 시작 전 김영목(7) 어린이와 장명숙 보살(52)은 팝핀트를 들고 원성 스님에게 사인을 요청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음악회는 브리튼의 심플 심포니 1악장 연주로 시작했다. 이어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진행으로 원성 스님과 대담이 이뤄졌다.

원성 스님은 지난해 출간된 저서 <꽃비>에 사용했던 삽화를 하나씩 스크린에 소개하며 설명 했다. 이날 스님은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 했다. '자연', '천진불', 그리고 '사랑'이었다.

<꽃비>는 자연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요정의 나라 왕자였던 코코가 등장하지요. 인간들이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그 소중함을 잃고 사는게 안타까워 일부러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코코를 통해 꽃과 나무, 동물, 바람과 같은 자연에도 인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되새겨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라며 자연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동물보호에 대한 자신의 감동 깊은 일화도 들려줬다. "3년 전 전시회 때문에 시내로 나가는데 버스를 타고가다 개가 차에 치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얼른 버스기사보고 내려달라고 해서 그 개를 안고 동물병원에

다.' 이 말이 끝나자 무대에는 천진불들이 나란히 등장했다. 은석초등학교 3년 김지현·김지영 양이 '내마음에는' '노란민들레' 등 네 곡을 선사했다. 특히 원성 스님은 자신이 노랫말을 만든 '청솔아래서'가 음성공양 될 때는 가사를 따라부르기도 했다. 공연의 열기는 뜨거웠다. 예정된 1시간 30분이 훌쩍지났지만 원성 스님은 세 번째 주제인 '사랑'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우리 스님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속인들과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조건

## 삽화 소개하며 자연·천진불·사랑 주제로 이야기 직접 작사한 '청솔 아래서' 찬불가 따라 부르기도 7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시회

로 달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 기억을 되새기는 스님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잠시 숙연해진 분위기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종달새' 1악장 연주로 다시 밝아졌다. 니르바나 오케스트라의 경쾌한 선율은 금방 청중들의 무거운 가슴을 열어 내리 주었다.

두 번째 주제는 '천진불'. 무대 중앙에는 스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동자승 그림이 등장했다. 이 그림을 보자 김상영 교수가 "스님이란 그림의 동승들이 많이 닮았네요."라고 하자 원성 스님은 "이젠 제가 너무 늙어버렸어요."라고 대답해 객석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

"순수하고 천진스런 동자승들의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님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동자승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고 맑은 어릴적 본성을 되새겨 재발심 한다면 누구나 천진불이 될 수 있습니

때문에 선택한 사랑을 주로 하지요. 예를 들면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학벌이 좋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등등.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또 장애인이어도 불구하고 누구나 똑같이 사랑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 즉 '자비'입니다." 객석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날 연주회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 가곡 '사랑' 등 사랑을 주제로 한 음악들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연주회장에서 만난 김경옥 보살(43)은 "감동적이고 가슴 한 편으로 무엇인가 따뜻한이 전해오는 음악이었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자비를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원성 스님은 7월 14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⑫

## 새천년 위한 불교음악제 열려

90년대 후반

그 만남이 있는 후 준비위원회 모임을 계속 갖고 불교음악인들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참여를 권했다. 김동환 정부기 김일섭 교수, 김희조 이인원 조영근 황학현 최영철 홍도후 씨, 정덕 대운 효경 스님, 홍윤식 학장 김순인 회장 등 많은 분들이 동참했다. 한국불교음악협회는 1999년 10월 19일 새천년을 위한 불교음악제를 열었다.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열린 이 음악회에는 운문 스님이 작사를, 정부기

최영철 씨에 대한 사실 확인과 책임을 김희경 씨에게 묻고자 했으나 김 씨의 지도 교수가 참여하는 연주회인데 하면서 합창단장과 준비위원회에서 그냥 묻어 두고 가자고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운문 스님의 불교음악 40년 역사가 담긴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음악회를 마치고 난 후 한국불교음악협회 정관도 만들었고, 불교음악인들의 마음도 모아져 문화관광부에 사단법인 등록도 할 참여했다. 그때 당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김석오 과장은 "박범훈 교수와 반영규 김희경 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운문 스님 작사 오페라 '아미타불' 초연 (사)불교음악협회 창단, 반영규씨가 회장

있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교음악제 최초로 무대에 올랐다. 이 불교음악제는 대한불교불교음악협회의 준비 모임으로 불교음악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는 일이었다. 음악회는 큰 문제없이 끝났으나 진행에는 장애가 많았다. 첫 번째는 이인원 씨가 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인 박범훈 교수가 "국립국악관현악단과는 상관 없는 일이므로 지휘를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그래서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악장으로 있던 홍도후 씨의 권유로 결국 이인원 씨가 지휘를 맡게 됐다. 그런데 홍도후 씨에게 김희경 씨가 "이번 음악회를 조계종 총무원에서 못하게 해 음악회가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그날도 연합창단은 연습에 열중이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연주

달라"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교계 문화담당 기자가 '사)불교음악협회'가 설립됐다고 전했다. 회장을 반영규 씨가 맡아 사불교음악협회가 문화관광부의 설립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어이가 없었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니 국회정각회에서 근무했던 이상관 씨의 도움을 받아 법인 등록을 한 것이다. 그래서 박범훈 교수를 찾아가다. 박교수는 "협회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 이 협회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말했다. 준비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2000년 4월 12일에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기념 연주회를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갖고 사삼보불교음악협회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 연주 통한 명상 체험

티베트명상 음악회/6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관서

보리선원(원장 각성 스님)은 6월 2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티베트 명상음악회'를 연다.

이날 음악회는 티베트에서 18년간 수행한 금보리 대사가 '반야밀주'를 독송하는 순서로 시작한다. 이어 각성 스님이 인도의 파드마삼바바(연꽃에서 태어난 자) 대사가 가르친 '연화생대사 심주 다라니' 연주를 통해 명상을 체험하게 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금보리 대사의 '천음'도 이번 연주회에서 주목해 들을 만하다.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깃들여져 있는 이 '천음'은 듣는이의 심신을 안정시켜 주며, 동시에 몸의 경락을 풀어 피와 기가 잘 통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신이 편안한 선정 상태로 빠르게 들어가게 도와주는 수행법인 '보리정 정관상법'도 각성 스님에 의해 소개된

### 詩書로 떠나는 임자기행 ⑮

지리산 봉천암

정인성 시인

화엄사 뒷마당 그늘 속에는 산새들이 파놓은 웅덩이가 있는데요. 울다 울다 지쳐서 목이 잠긴 새들이 포르르 날아와 목을 축이고 반아인경 한 스펠씩 외우고 가는 웅덩ям 하나가 그늘 속에 있는데요.



봉천암(鳳泉庵)-화엄사 뒤뜰에 있는 무속암자. 봉천수라 이름한 석간수를 마시면 목이 푼다는 시원함을 느낀다. 그림 : 이상배 화백

# 茶心마루 공장직판 도매가세일

다심

자연의 향기와 숨결로 심신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소나무를 그대로 사용해서 쓰면 쓸수록 풍격을 더해가는 좌탁입니다.

찾상 (mm)  
660x425x200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 ▶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 ▶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 ▶ 소재 : 우리나라 소나무 사용
- ▶ 사용 :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
- (예) 차탁, 거실의 좌탁,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손님상 등
- ▶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골동품 만들어나가는 과정 - 대물림이 가능)

※ 중국산과 무늬목 좌탁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배송하여 드립니다.

구분	크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좌탁(좌탁)	1200x600x300(小)	400,000	190,000
	1300x770x300(中)	500,000	210,000
	1500x770x300(大)	600,000	260,000
	1800x770x300(特大)	700,000	310,000
찾상	660x425x200	160,000	80,000

**주문처**

**080-300-9928**

농협 177483-51-071977 (예금주:천소헌)

※ 겨울에 수축하고 여름에 팽창하는 살아 숨쉬는 소나무 좌탁입니다. (무늬목을 입힌 좌탁은 수축 팽창을 하지 않습니다.)